

세계 셰프들, ‘한국의 장’ 주제 요리경연 예선 열기 후끈

13개국 ‘케이푸드 국제 경연, 글로벌 은둔고수’ 진행
10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서 선발 13개 팀 결선

남도미식과 세계 식문화가 만나는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 ‘케이푸드(K-Food) 국제 경연, 글로벌 은둔고수’가 전 세계를 무대로 본격적인 서막을 올리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경연 프로그램은 각국에서 활동 중인 셰프가 한국의 식재료와 조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 요리를 선보이는 국제 요리 경연이다. 예선전은 한식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전 세계 13개 나라 주재 한국 공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이지리아, 루마니아, 스페인, 홍콩, 페루에서의 예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미국, 아일랜드, 인도네시아, 칠레, 코스타리카, 태국, 튀르키예, 프랑스에서는 예선전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가별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13개 팀은 박람회 기간인 10월 4일 현장에서 열리는 결선 무대에 올라 ‘한국의 장(醬)’을 주제로 창의적 요리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 셰프는 각국의 미식 정체성과 조리 철학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 발효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글로벌 케이푸드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한식이 세계 각국 셰프와 만나 어떤 창의적 형태로 재해석될지 기대가 크다”며 “국제적 수준의 경연을 통해 케이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남도의 식재료와 미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남도의 우수 농산물 활용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청정한 자연과 손맛이 어우러진 남도미식의 가치 활용과 산업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승인된 국내 최초 미식테마 국제행사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연설했던 기자



곡성군, 찾아가는 의로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운행

양·한방 진료, 검안, 구강검사로 농촌어르신 건강돌봄 실천

곡성군(군수 조상래)이 지난 29일 석곡면 종합회관에서 석곡농협과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는 교통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로서비스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석곡면·목사동면·죽곡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 400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지원에는 광주 원광대 한방병원, 광주 센트럴 윤길중 안과, 광주 하트치과, 대한의료봉사회 등 4개 기관의 전문 의료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양·한방 진료, 침 시술, 근골격계 질환 진료, 영양제 처방, 시력검사·검안, 구강검사 및 구강 건강 교육 등 종합적인 의로서비스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왕진버스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보성군, 농업인학습단체 ‘농촌 클린업’ 활동 추진

지역 사회 선도 농업인 학습단체 영농폐기물 1,710kg 수거

보성군은 지난 27일 한국농촌지도자보성군연합회 임원단과 보성군 청년4-H연합회 등이 ‘농촌 클린업’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해 영농폐기물 1,710kg을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도자회와 청년4-H연합회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에 걸쳐 12개 읍면의 방치된 농약 빈 병과 봉지를 수거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분리 작업 후 총 1,710kg의 영농폐기물을 한국환경공단 순천사업소에 인계했다.

참여자들은 12개 읍면 일대에 방치된 농약 빈 병과 봉지를 집중 수거한 뒤,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서 분리 작업을 거쳐 한국환경공단 순천사업소에 인계했다.

올해는 보성군청 기후환경과의 협조로 농가에 장기 보관 중이던 폐농약(잔류농약)까지 함께 회수해 하천·토양 오염 방지 효과를 높였다.

환경정화 활동의 수익금 일부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재)보성군장학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농촌지도자회 정병진 회장은 “회원들이 농촌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1,710kg이라는 많은 양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성 농촌의 미래를 위해 농촌지도자회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청년4-H연합회 이후영 회장은 “우리 세대가 농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9월 하반기 ‘농촌 클린업’ 활동을 추가로 추진해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보성/김윤기 기자



고흥군 과역면, 사랑의 열무김치 나누기 봉사활동

취약계층 90가구에 사랑의 나눔 봉사활동으로 훈훈함 전해

고흥군 과역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서완)는 지난 27일 관내 32개 마을경로당과 취약계층 9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열무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과역면 주민자치회 위원 25명이 참여해, 계속되는 무더위로 입맛을 잃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정성껏 담근 열무김치를 각 마을 경로당과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박서완 과역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매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해 준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정성으로 만든 열무김치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영 과역면장은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하반기에도 과역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함평군 해보면, 익명 귀농 기부자의 지속적인 나눔 이어져

귀농인, 직접 키운 보리 60kg·마늘 2점 기부

전남 함평군 해보면에 귀농인들이 지속적으로 익명으로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함평군은 “5월 귀농인의 익명 기부에 이어, 지난 27일에도 익명의 기부자가 해보면사무소에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본인을 해보면에 거주하는 귀농인이라 밝힌 한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눠 먹

고 싶다”며 해보면사무소에 직접 재배한 마늘종 2박스(40kg)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귀농 5년 차라 밝힌 또 다른 익명의 기부자가 “제가 직접 농사지는 보리와 마늘을 이웃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보리 60kg과 마늘 2점을 기부했다.

정선희 해보면장은 “농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기부해 주신 귀농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농산물은 어려



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웃 간의 온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문화가 지역에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